특검 "이영선, 박근혜 비선진료 전담"

이영선, 朴 비선진료 안봉근·정호성에게 보고… 김상만 보조 간호사 "朴 진료, 최순실로 기록"

이영선(38) 청와대 경호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장님'이라고 부르며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의 청와대 출입을 관리했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특검은 이 경호관의 2013년 휴대전화 문자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문자 내용은 '대장님 지금 들어가셨다. 2시간 소요 예정입니다', 'VIP 지금 수액 맞으러 들어가셨다', '수액 다 맞으셨다', '손님 정문 통과했습니다', '기치료 아주머니 이상없이 마치고 모셔다드렸습니다' 등이다.

특검은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을 '대장님'으로 불렀다"며 "비선진료인들이 들어오면 주사를 맞거나 진료를 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통상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그때그때 일정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호관이 비선진료인 출입과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안 전 비서관은 이 경호관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비선진료 관련 보고는 받지 않았고 모두 이 경호관이 전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61)씨를 '쌤'이라고 불렀고 청와대 도착 등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 혈액을 무단 반출한 내용도 밝혔다. 2013년 5월 '지금 모셔다드렸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채혈한 것 내일 잘 챙기겠습니다'는 문자내용을 통해서다.

특검은 "피를 가져다준 것은 확인됐는데 채혈을 누가했는지 이 경호관이 말하지 않고 있다"며 "속칭 주사아줌마 등 불법의료인이 국가기밀 2급인 대통령 건강정보가 담긴 채혈까지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의들 진료 내역도 문자로 확인된다"며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가 다른 자문의에 비해 10배 넘는 진료를 담당했다. 박 전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최소 80회 이상"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원장 부부의 청와대 출입도 모두 이 경호관에 의해서만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온 간호사 윤모씨는 최씨가 2010년 차움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고 박 전 대통령을 국회의원 시절 데리고 온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김 전 자문의의 보조 역할을 했다.

윤씨는 "최씨는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하는 편이라 유별스러운 환자로 간호사들이 알고 있다"며 "내원하자마자 '바쁘니까 빨리 진료해달라'고 복도를 왔다갔다하거나 자기 차례가 아닌데 진료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주사를 놓아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그런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을 데리고 방문해 간호사들 사이에 말이 많았지 않냐"고 묻자, 윤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씨는 "박 전 대통령 진료는 (의원 시절부터) 최씨나 최순득씨로 기재했다"며 "김 전 자문의가 당선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 처치가 필요해 주사를 갖고 가야 한다고 말한 적 있고 주로 태반, 감초, 미네랄, 비타민 주사였다"고 말했다.

또 이 경호관에게 박 전 대통령 혈액을 받았고 최씨 명의로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현직 대통령 혈액검사까지 최씨 명의로 하는 것이 찜찜했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뉴시스

셀카봉으로 사진 찍어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셀카봉으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송영길, "햇볕정책·개성공단 재개 답변 회피" 安에 정체성 공세

박지원·정동영 향해 "사드 당론 바꾸면 안철수 사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햇볕정책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정체성 공세를 취했다.

송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에는 햇볕정책 계승, 개성공단 복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도 "본인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햇볕정책의 전도사를 자인한 분"이라며 "자기 당 대선후보가 본인의 정치적 상징인 햇볕정책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송 본부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우리당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한 게 국민의당"이라며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사드를 수용한다.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인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사드 반대) 당론 변경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론 변경을 시도한다고 말하는데,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각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항상 우리당을 '문재인 패권'이라고 비판했는데, 당론도 따르지 않는 대통령 후보의 말 한마디로 당론이 변경되고 햇볕정책 전도사 박지원, 사드 반대 전도사 정동영이 대선후보의 말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변경한다면 안철수 사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송 본부장은 끝으로 전날 TV토론에서 안 후보가 '위안부는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봤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일위안부 문제를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시정부를 기억하지도 못했고, 마치 당시에는 정부가 없는 일본 제국주의 국민인 것처럼 오도한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다"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즉각 수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민주당 전북도당, 대선 선대위 발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제19대 대통령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법조계·경제계 등 다양한 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선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명예선대위원장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민주당은 이날 "이선 대선은 시대와 정치, 경제를 바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이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미래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라는 중요한 갈림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선대위 구성의 초점은 통합에 뒀고 정권교체와 정치쇄신을 향한 전북도민의 열망과 전북 몫 찾기에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도민들과 무너진 대한민국을 하나씩 제자리를 놓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후보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 시대교체의 시대적 과업 완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 강력한 수권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안재용 기자

문재인 "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육아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아동수당 1년에 약 2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기존의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약이행에 따른 재원 계획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하겠다"며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80%로 올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빠에게도 출산 3개월 후 출산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어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며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정부 지원 표준보육료에 물가상승률 반영 ▲3년마다 산정하는 표준보육료에 준하는 보육료 지원 ▲표준보육료 비용 산정시 어린이집 운영자·보육교사·학부모·공익대표 참여 보장 ▲대체교사제 확대를 통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현재 초등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 6학년까지 연장 ▲돌봄교사 12만 명 채용 등을 공약했다. /뉴시스